CNCITY
에너지

주최 CNCITY 에너지 주관 CNCITY 마을에너지재단 DIY 도시여행자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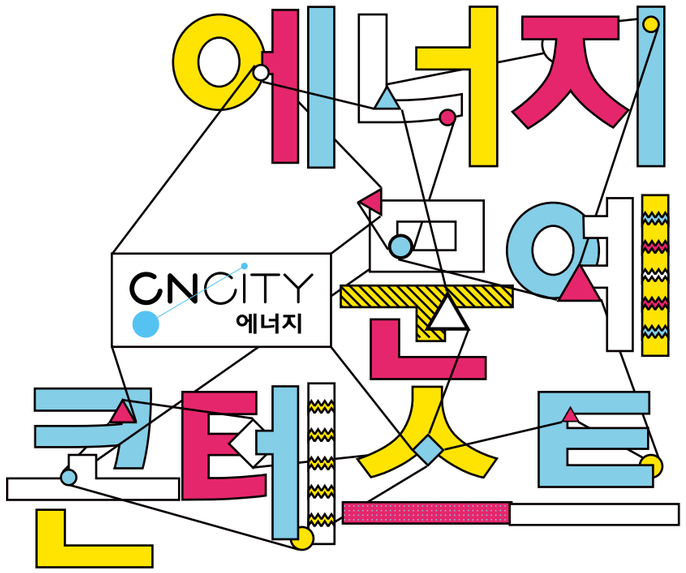
creating a new city

2018 에너지 문예 콘텐츠

CNCITY 에너지

에너지 문예 콘텐츠

CNCITY 에너지



CNCITY
에너지

CONTENTS

참가대상 대전광역시, 계룡시 소재 초등학생

참가부분 그림 그리기, 글짓기

참가주제

01 현재, 우리 곁의 도시가스
(안전하고, 깨끗하고, 소중한 도시가스 떠올려 보기)

02 미래, 우리와 함께할 에너지
(도시가스, 전기, 태양광 등 자유롭게 상상해보기)

발간사 04

심사평 06

수상자 그림 08

수상자 글짓기 70

행사스케치 88

발간사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CNCITY에너지의 제12회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CNCITY에너지의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는 학생들이 그림 그리기, 글짓기를 통해 에너지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입니다.

이번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두 주제인 "현재, 우리 곁의 도시가스"와 "미래, 우리와 함께 할 에너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창의적 생각을 잘 표현해 냈습니다. 학생들의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 참여 경험은 가스안전의식의 생활화는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임해준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애정이 담긴 박수를 보냅니다.

CNCITY에너지는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의 소중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도 매년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황 인 규

심사평
-
그림 부분

대전버드내초등학교 김윤희 교사

이번 콘테스트의 그림은 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도시가스와 미래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였습니다.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공해없는 미래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끼를 좋은 작품으로 표현해 준 참가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석봉초등학교 이은엽 교사

이번 그리기 부문의 심사에서는 연령에 맞게 본인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어른의 도움을 받았거나 기존 작품과 유사한 구도와 내용을 지닌 작품, 비슷한 기법이 다수의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품들은 우선 배제하였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한 작품에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폭넓은 사고와 창의적인 표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작품에서는 순수한 동심과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 많았고, 고학년 학생들은 완성도와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이 다수를 이루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대회가 도시가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사평
-
글짓기 부분

대전수정초등학교 황영희 교사

CNCITY에너지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를 통해 여러 학생들의 톡톡 튀는 생각과 따뜻한 감성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과 도시가스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 미래의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에 대한 학생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의 에너지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생활 속 에너지 이야기는 심사 내내 입가에 웃음을 띠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글로 에너지에 관한 소통을 하고, 그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눈으로 세상과 미래를 밝히기를 바라봅니다.

대전현암초등학교 이상연 교사

무한한 표현력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즐거운 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의 소중함과 에너지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글 속에서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 어린이들의 글쓰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문예 콘테스트 수상작 그림

구분	시상명	총수상인원 (그림)	수상자 성명 (학교)
파란하늘상	대전시장상	2명(2명)	박도연 (버드내초)
			윤나린 (글꽃초)
	교육감상	2명(1명)	김수현 (태평초)
	KGS사장상	4명(3명)	김채연 (글꽃초)
			김하은 (갈마초)
			성연후 (버드내초)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4명(3명)	황지민 (문창초)
			윤지훈 (새여울초)
			윤서연 (장대초)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6명(5명)	윤서연 (와동초)
			우시환 (버드내초)
			강은호 (반석초)
			김채은 (와동초)
			김태양 (새일초)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8명(5명)	김정연 (글꽃초)
			김가은 (새일초)
			강지성 (흥도초)
			최정아 (새일초)
			오세화 (가오초)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10명(10명)	조승아 (반석초)
			안중원 (성모초)
			송인규 (버드내초)
			이채윤 (글꽃초)
			박효민 (반석초)
			윤형진 (와동초)
			김희수 (글꽃초)
			홍민서 (가장초)
			김동현 (성룡초)
			두호정 (가장초)

구분	시상명	총수상인원 (그림)	수상자 성명 (학교)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30명 (30명)	조아인 (상원초)
			장윤지 (삼육초)
			임다은 (버드내초)
			홍은의 (문정초)
			김연우 (삼육초)
			홍채희 (두리초)
			박소이 (버드내초)
			박주찬 (와동초)
			박은서 (갈마초)
			최승원 (문정초)
			이지현 (대양초)
			한승민 (상지초)
			이서연 (상원초)
			김지민 (문정초)
			박서연 (대양초)
			신소윤 (태평초)
			최민경 (원평초)
			황지수 (문창초)
			김민교 (정림초)
			우태윤 (죽동초)
			황지유 (문창초)
			박소영 (갈마초)
			최가람 (새일초)
			김규나 (둔원초)
			정태은 (와동초)
			윤도연 (구즉초)
			김혜진 (가장초)
			홍하람 (가수원초)
			김태은 (새일초)
			공도운 (가장초)

파란하늘상
(대전시장상)

버드내초 **박도연**

윤나린 글꽃초

파란하늘상
(대전시장상)

파란하늘상
(교육감상)

태평초 **김수현**

김채연 글꽃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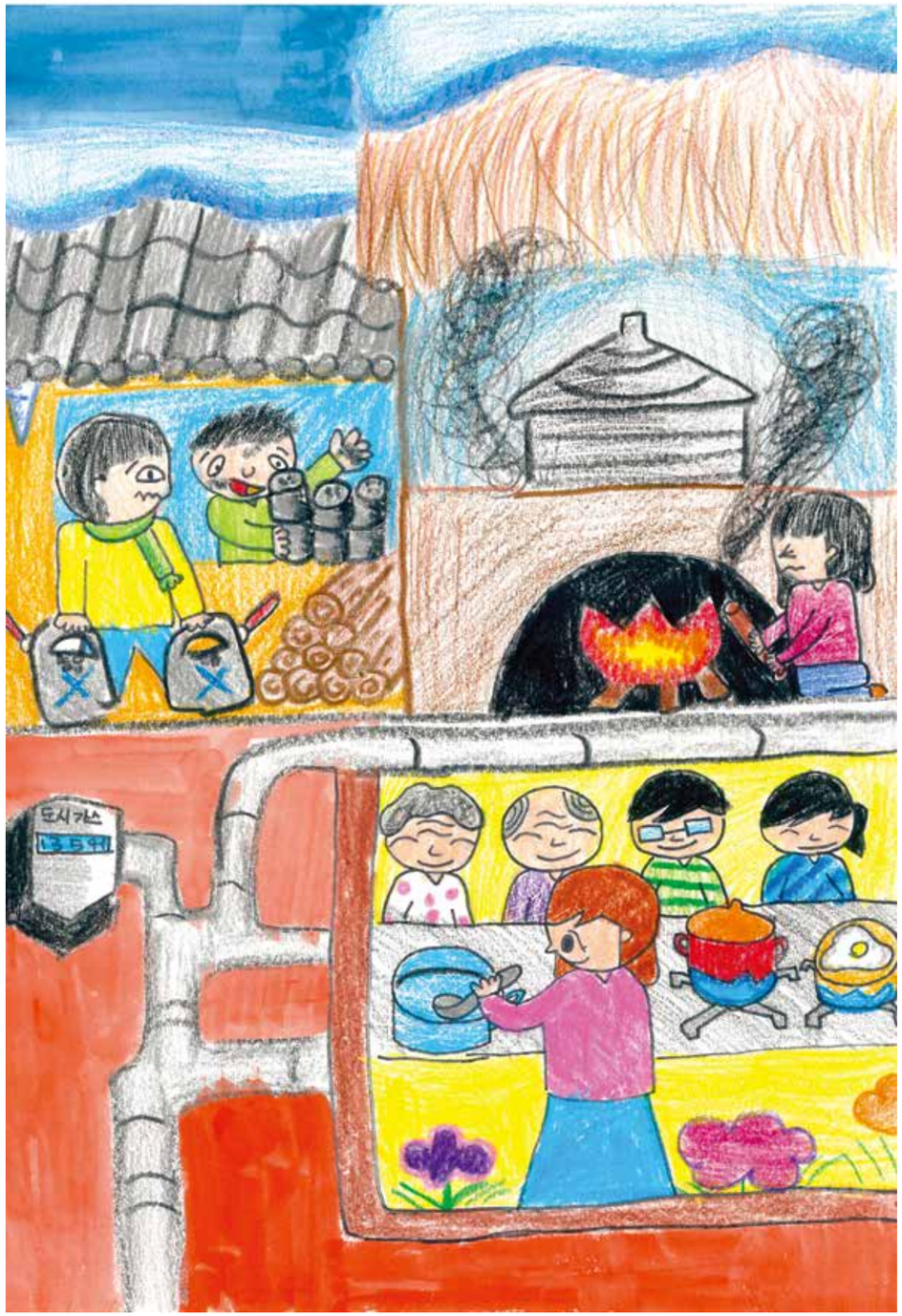
파란하늘상
(KGS사장상)

파란하늘상
(KGS사장상)

갈마초 **김하은**

성연후 버드내초

파란하늘상
(KGS사장상)



파란하늘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문창초 **황지민**

윤지훈 새여울초

파란하늘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파란하늘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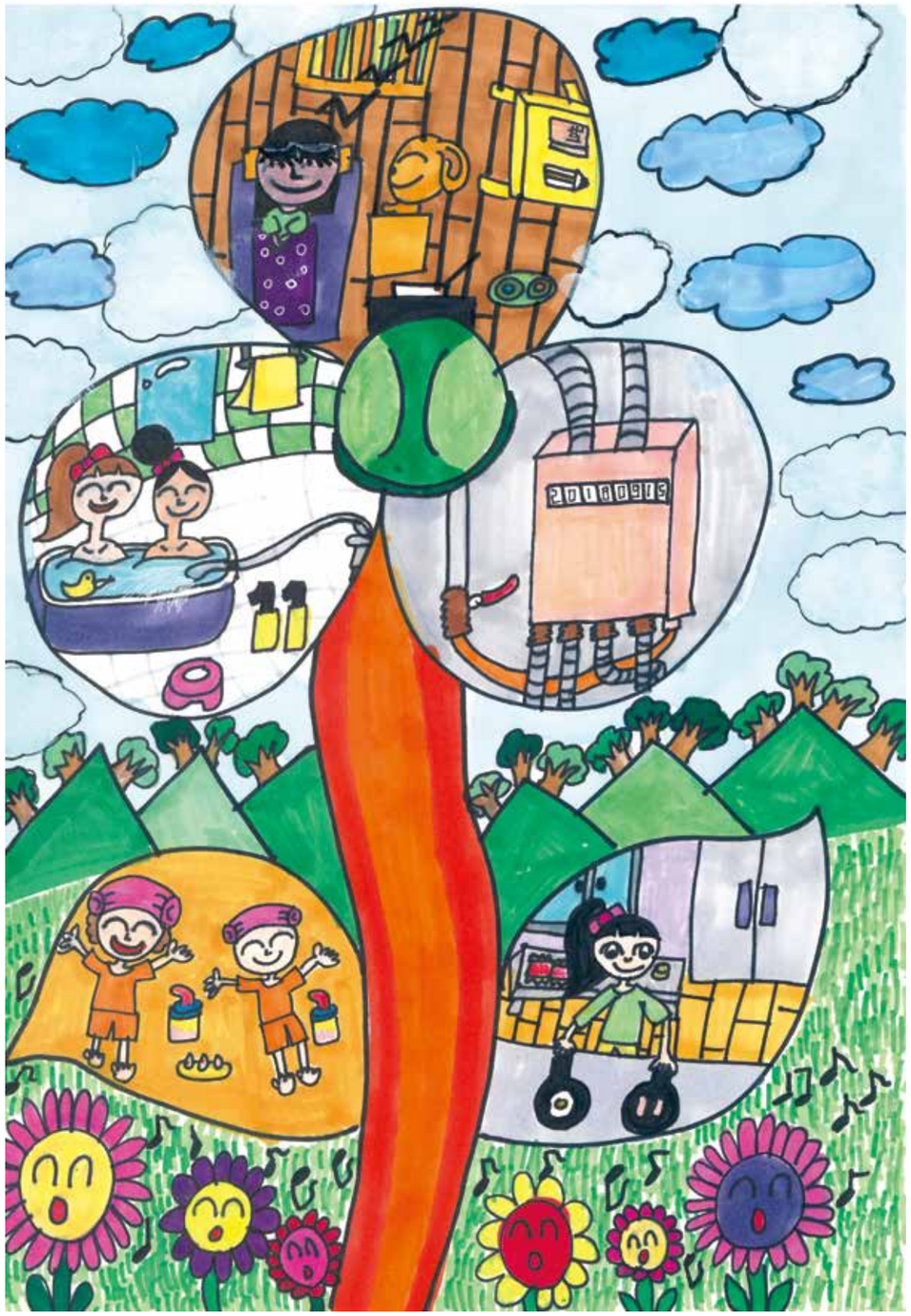
장대초 **윤서연**

강은호 반석초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버드내초 **우시환**



윤서연 와동초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와동초 **김채은**

김태양 새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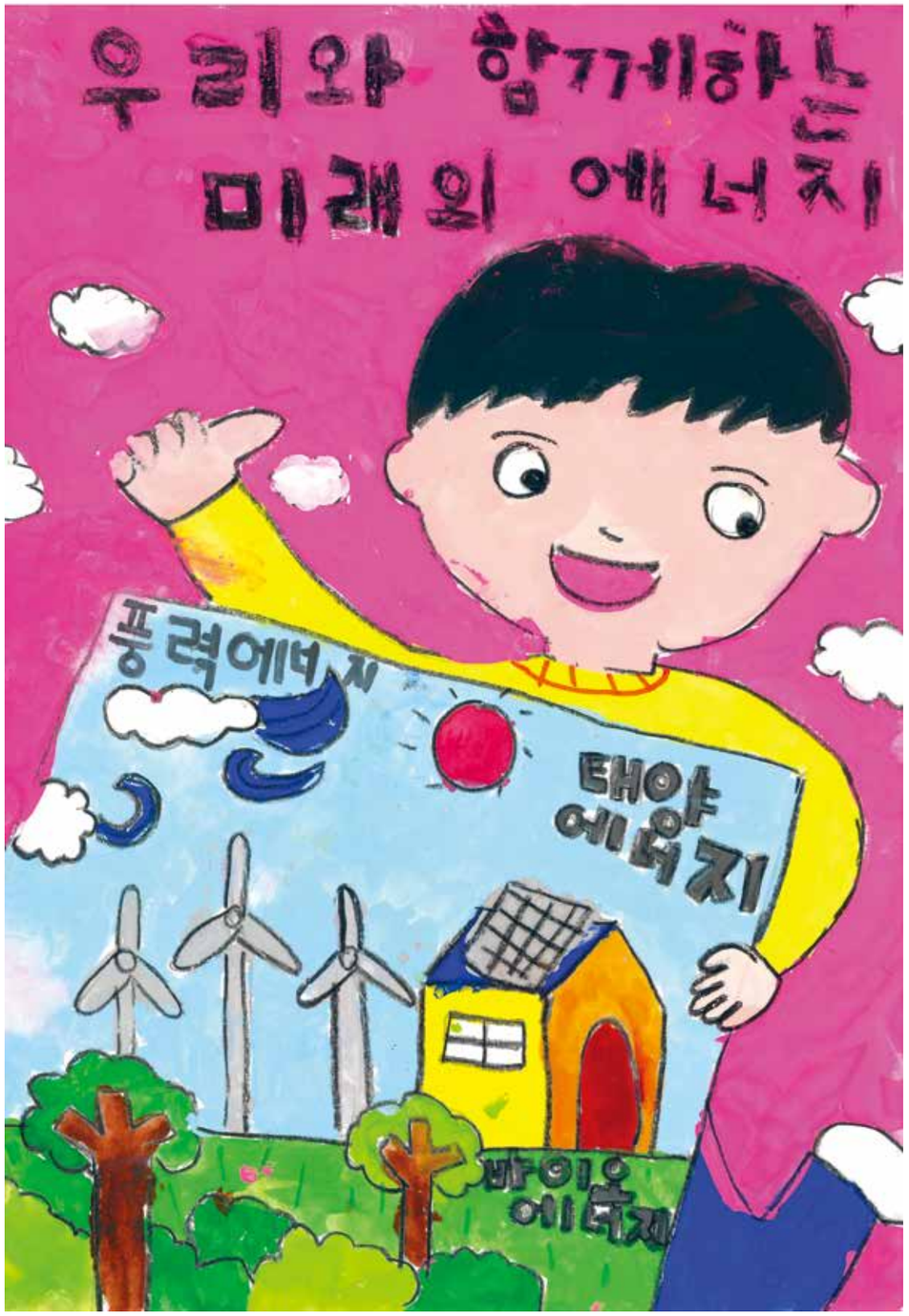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글꽃초 **김정연**

김가은 새일초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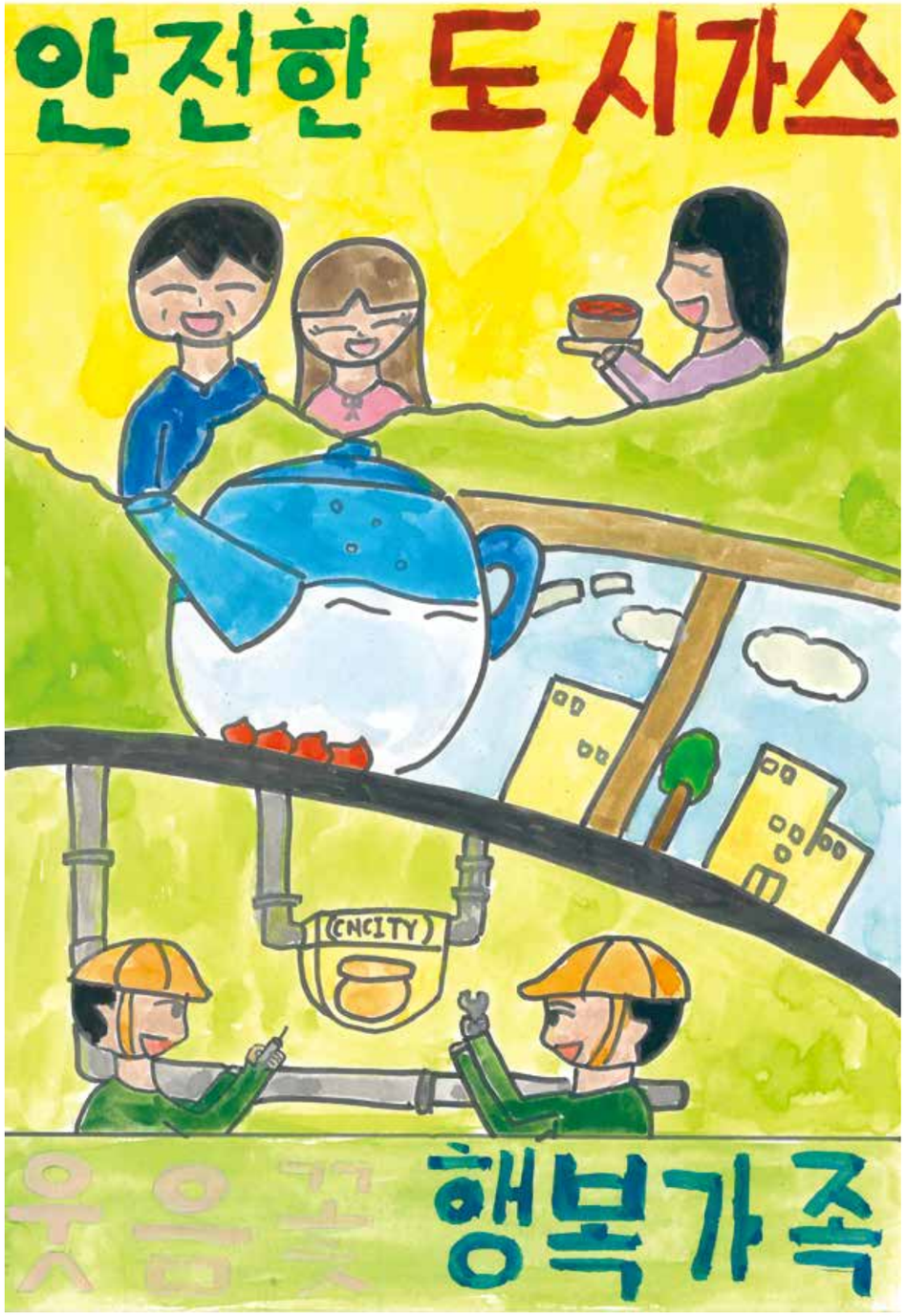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흥도초 **강지성**

최정아 새일초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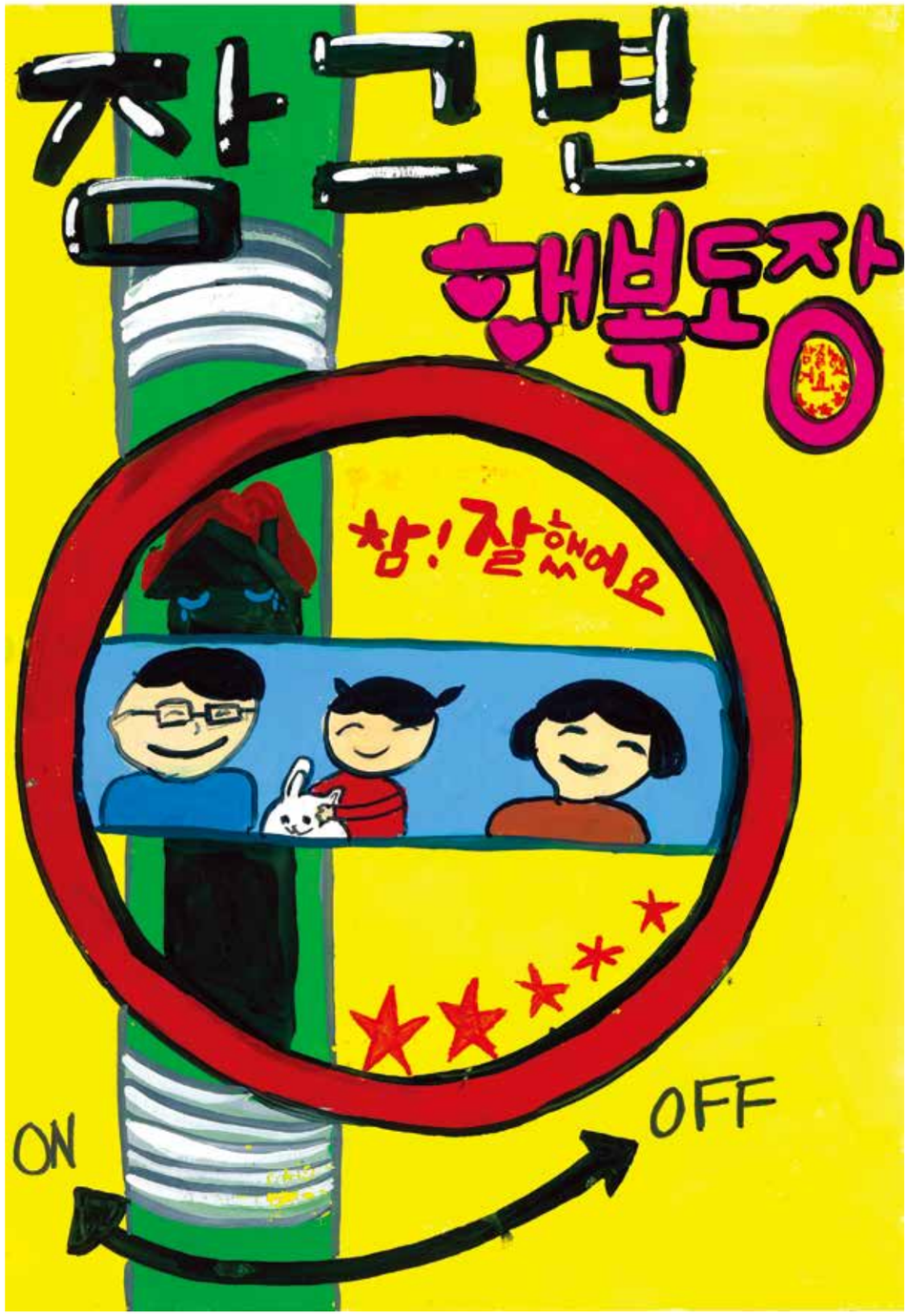
가오초 **오세화**

조승아 반석초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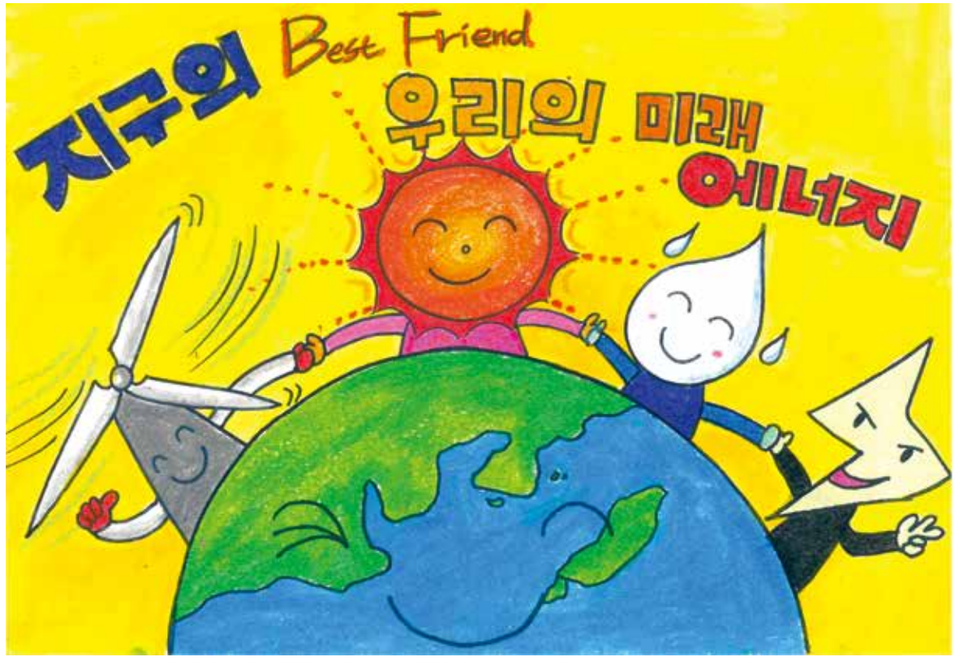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성모초 **안중원**



송인규 버드내초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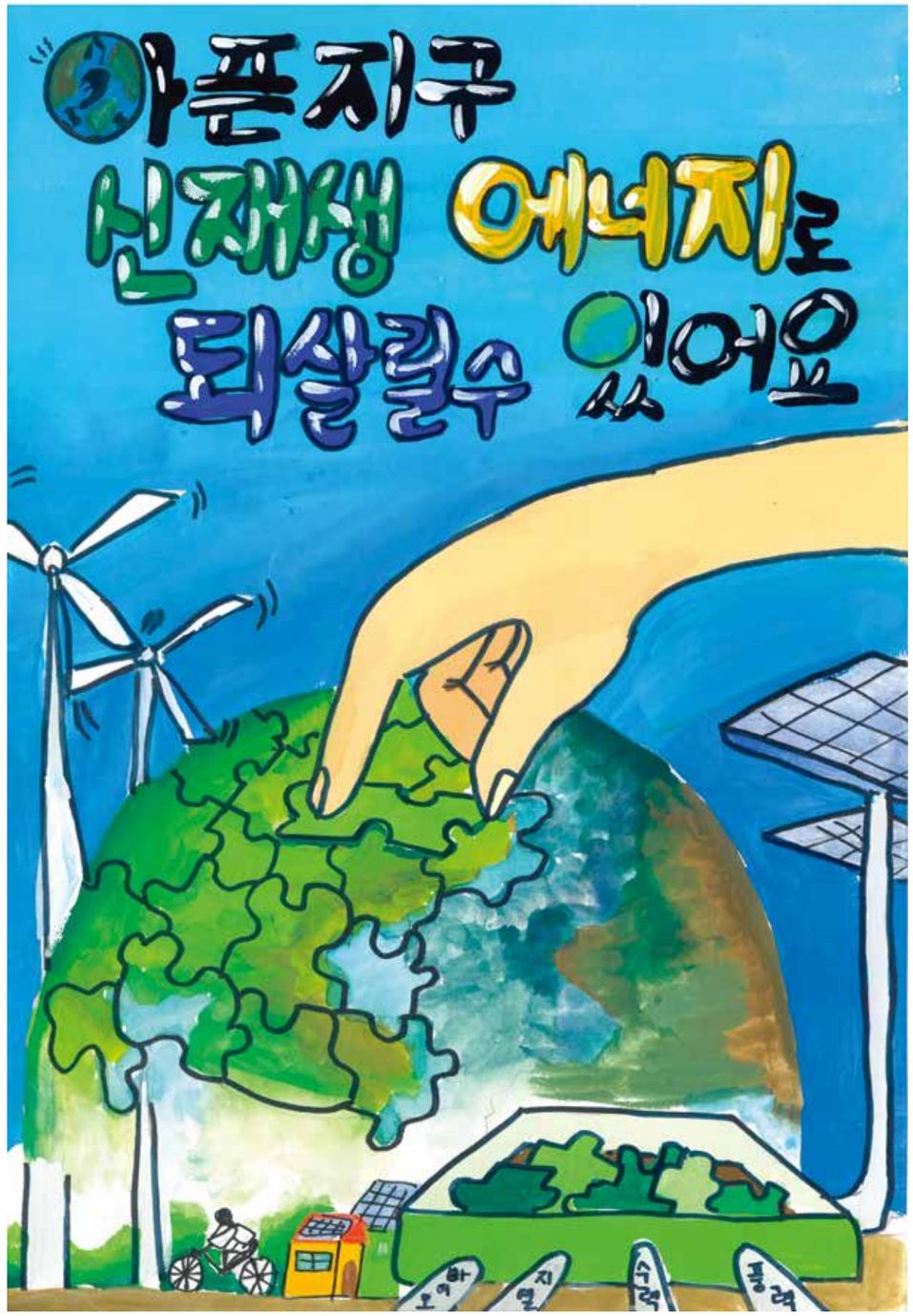
글꽃초 **이채윤**

박효민 반석초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와동초 **윤형진**



김희수 글꽃초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가장초 **홍민서**

김동현 성룡초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맑은도시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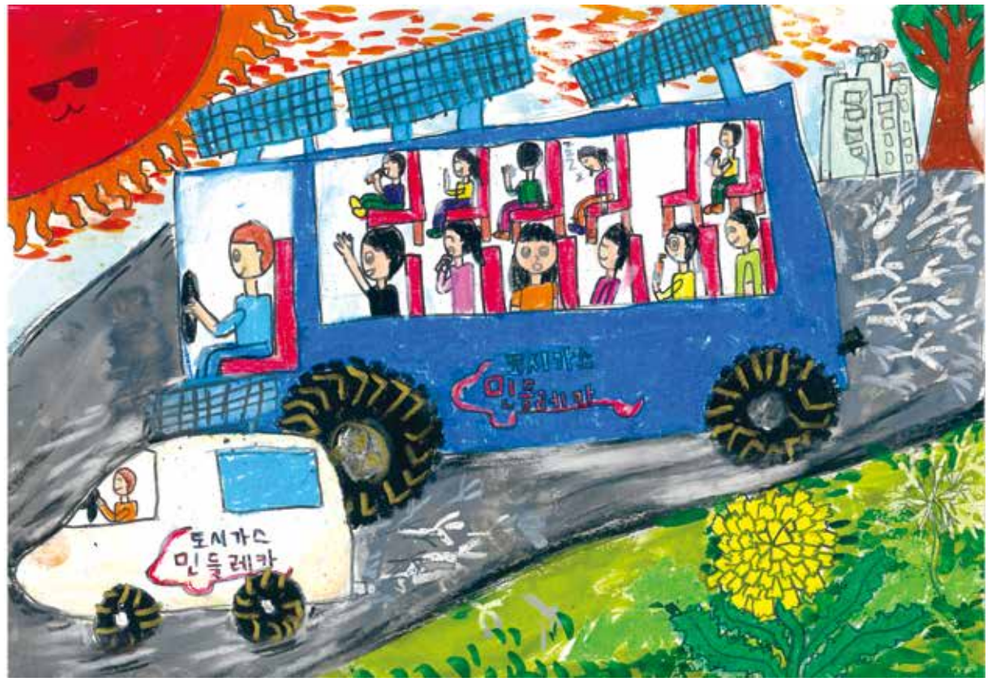
가장초 **두호정**

조아인 상원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삼육초 **장윤지**



임다은 버드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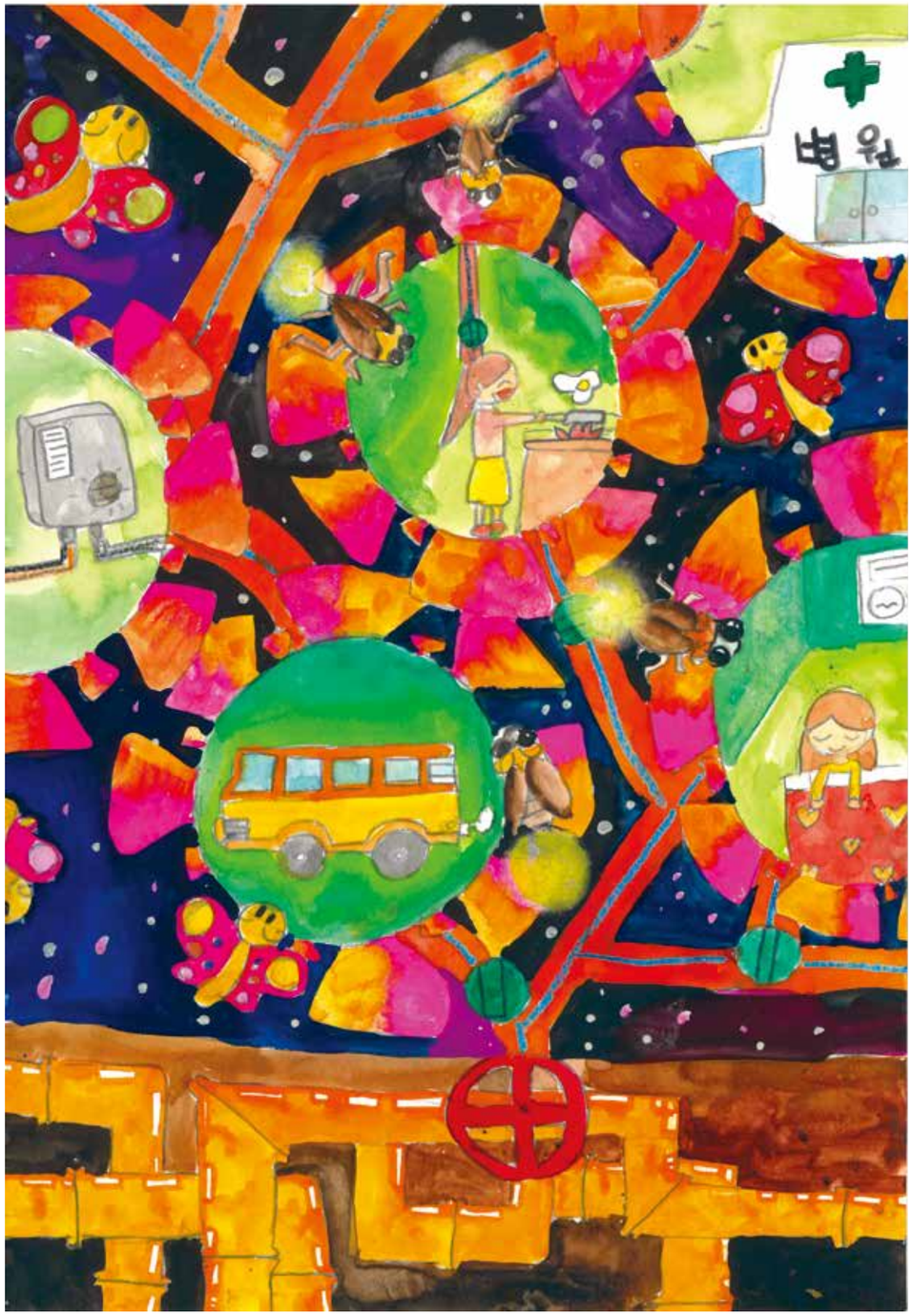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문정초 **홍은의**

김연우 삼육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두리초 **홍채희**

박소이 버드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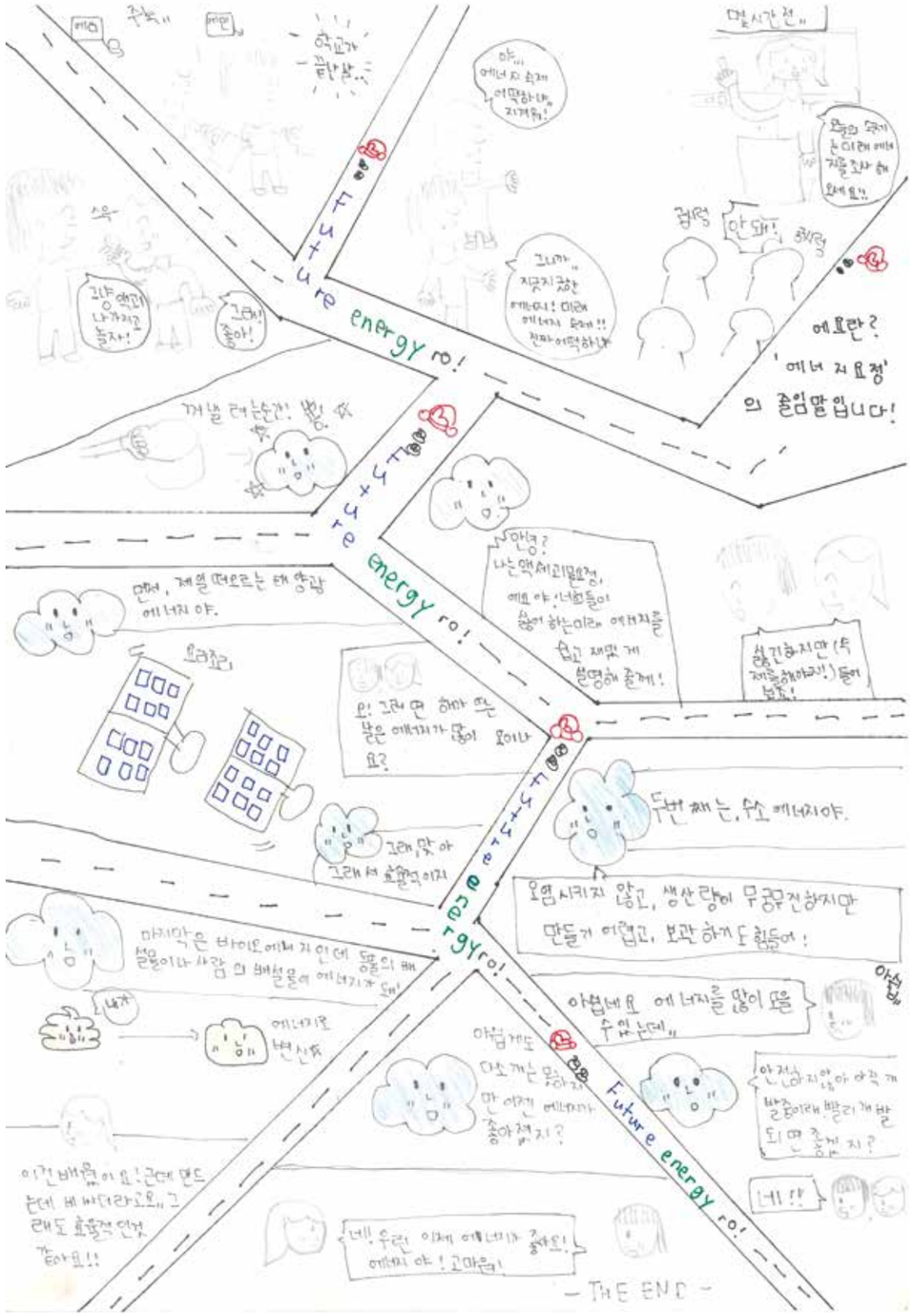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와동초 **박주찬**

박은서 갈마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문정초 **최승원**

이지현 대양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상지초 **한승민**

이서연 상원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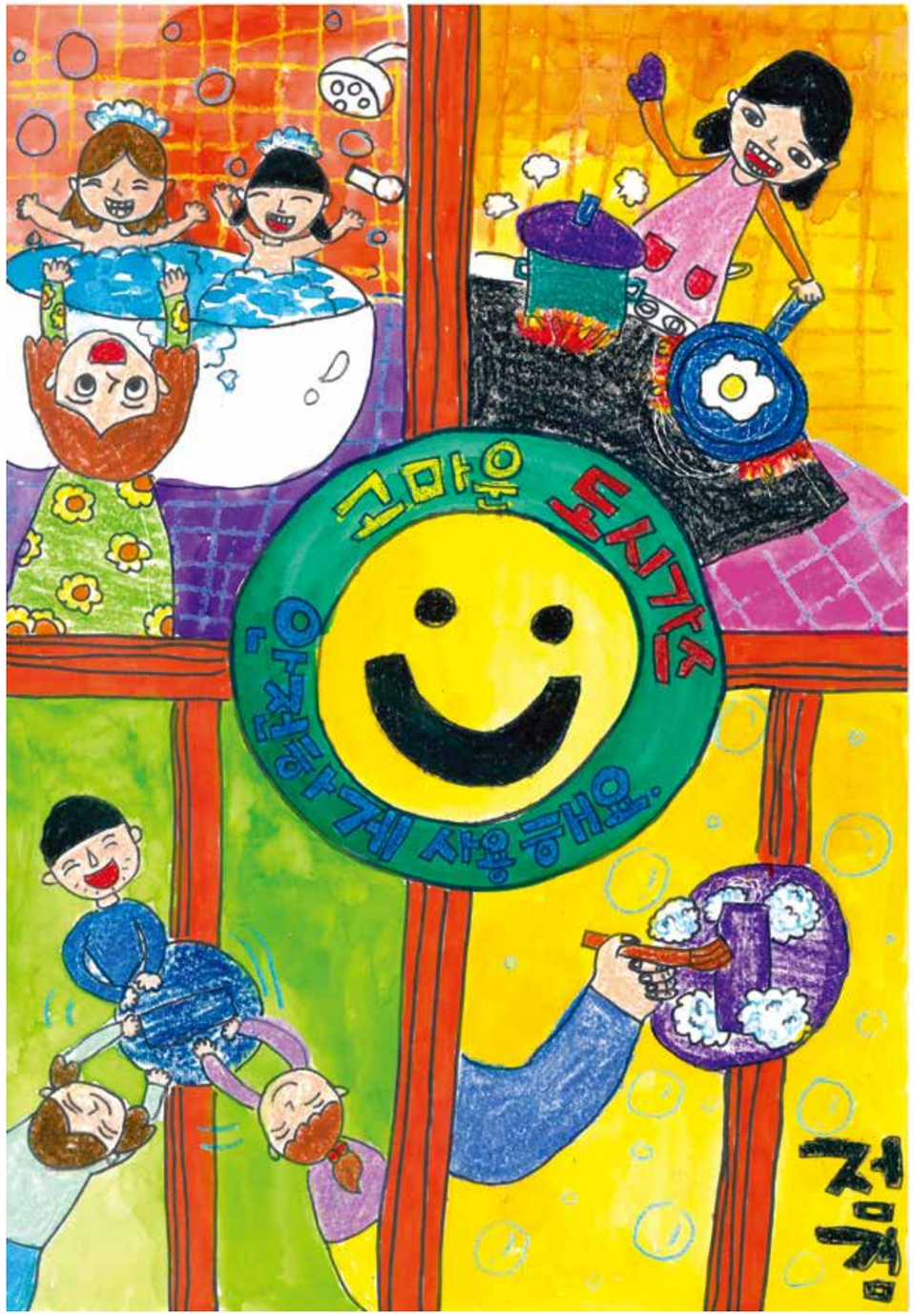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문정초 **김지민**

박서연 대양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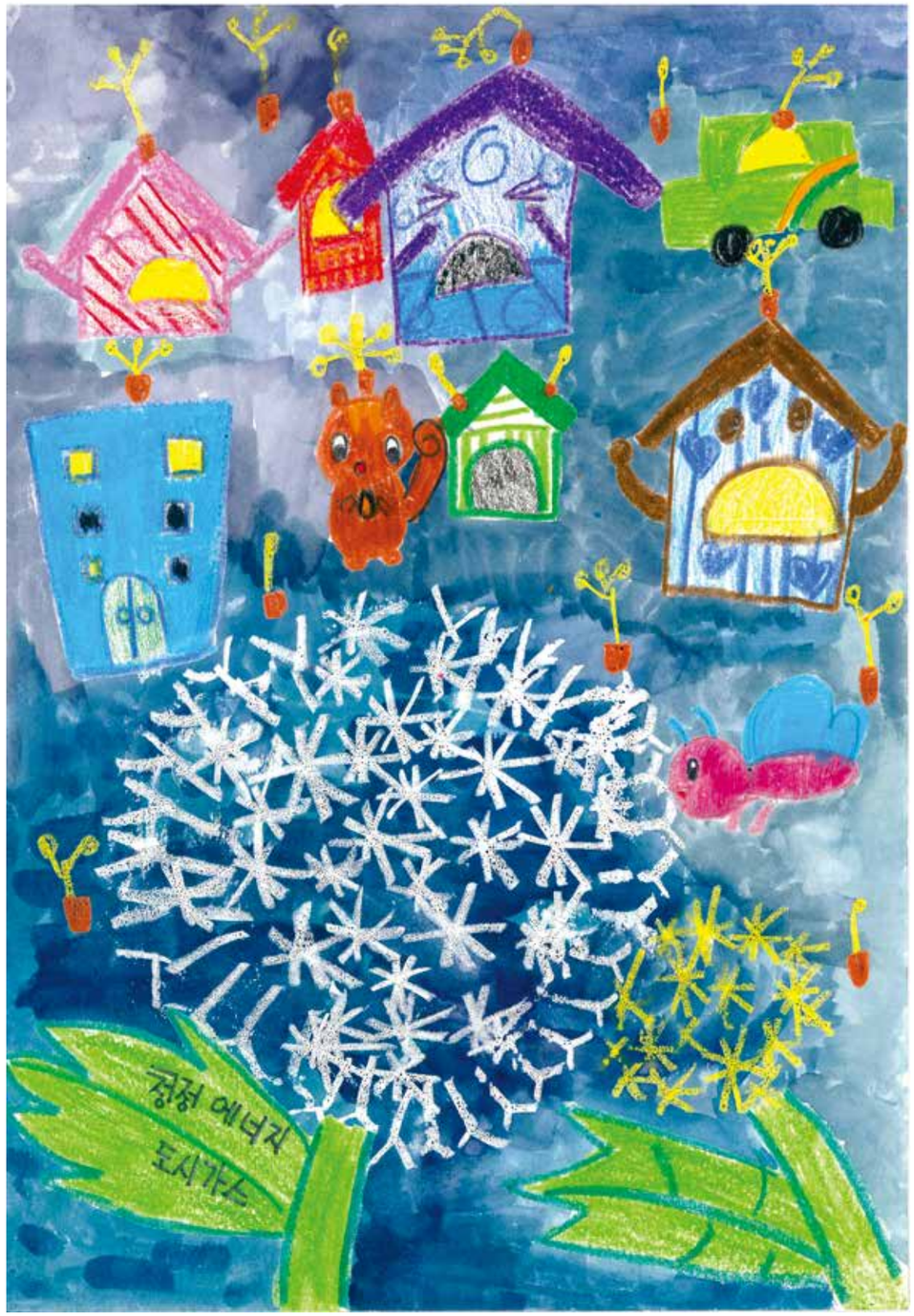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태평초 **신소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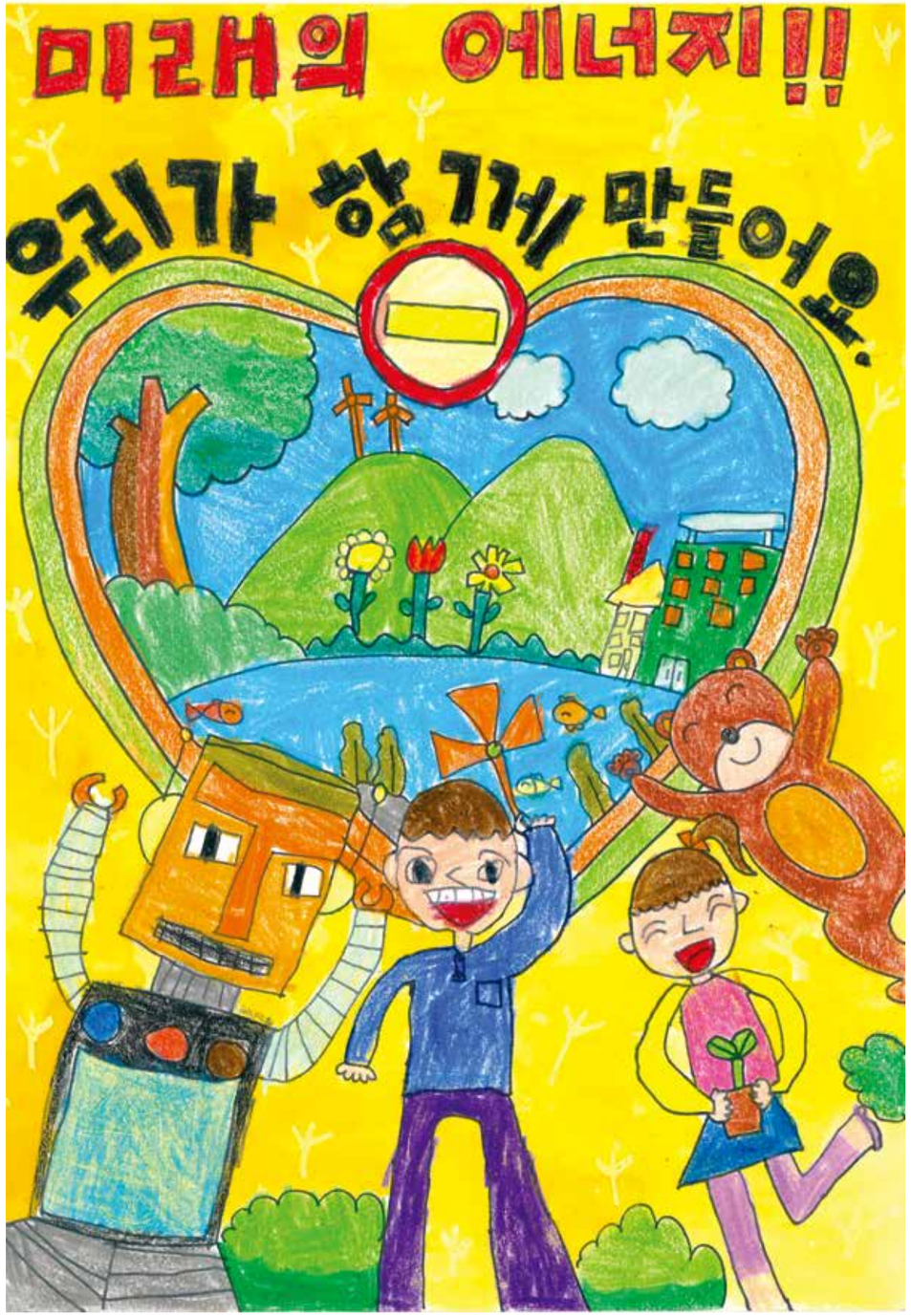
최민경 원평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문창초 **황지수**



김민교 정림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죽동초 **우태윤**

황지유 문창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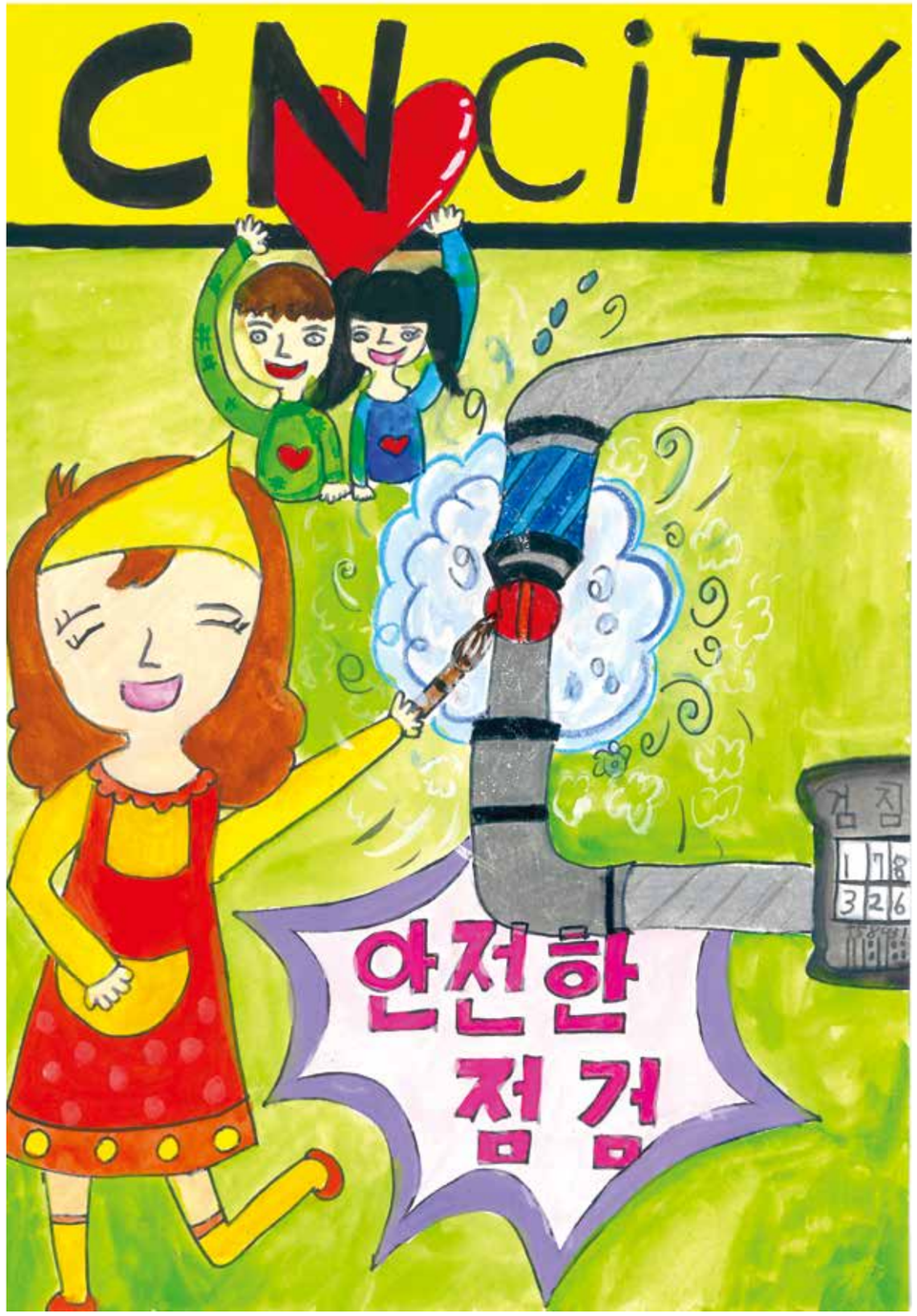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갈마초 **박소영**

최가람 새일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둔원초 **김규나**

정태은 와동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구즉초 **윤도연**

김혜진 가장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가수원초 홍하람

김태은 새일초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밝은마을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가장초 공도윤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 수상작 글짓기

구분	시상명	총수상인원 (글짓기)	수상자 성명(학교)
행복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명(1명)	손예림 (문성초)
파란하늘상	교육감상	2명(1명)	오승훈 (성룡초)
	KGS사장상	4명(1명)	최강연 (원평초)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4명(1명)	김재원 (문정초)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6명(1명)	김하영 (교촌초)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8명(3명)	김채원 (노은초)
			박영주 (관평초)
			조윤우 (반석초)

행복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문성초
-
손예림

고마운 우리의 친구, 도시가스

"똑똑"

6개월에 한번 도시가스 점검을 하러 아주머니가 방문하신다. 도시가스 점검일이면 우리 아파트에 도시가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시가스 점검 왔습니다."

나는 도시가스 점검을 꼭 해야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가스 점검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가스중독 그리고 화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점검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에 항상 함께하는 존재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족, 친구들, 학교, 집 등 제일 고마워 해야하는 존재들에게 고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중에 도시가스도 소중한 존재인데 잊고 있는 것 같다.

도시가스가 없다면 우리 생활에는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해주시는 요리를 쉽게 먹을 수 없다. 따듯한 물로 세수나 샤워를 할 수 없고, 추운 겨울 따뜻한 집도 꿈꿀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예전에는 도시가스보다 연탄, 석유 등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체했다. 하지만 비용이나 편의성에서 도시가스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지금도 우리 할머니 댁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지내시는데 특히 겨울에는 직접 연탄을 수시로 갈으셔야해서 항상 걱정된다. 대전이지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서 연탄, 석유를 같이 사용하시는데 석유 값은 너무 비싸다고 연탄과 같이 사용하신다. 위험하지는 않으실까 겨울이 되면 항상 걱정이 된다.

한번은 명절에 가족들과 음식을 만드는데 LPG가스가 떨어져서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스 배달을 기다렸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다. 이런 모든 일이 나에게는 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덕분이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몇가지의 안전수칙이 있다.

첫 번째로,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사용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점화 시킨 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점화 시킨 후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하고, 장시간 외출 또는 취침 전에 중간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을 꼭 해야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곁에 항상 있는 친구, 도시가스를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가 더 많은 곳에 공급되어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파란하늘상
(교육감상)

성룡초
-
오승훈

청정에너지와 마음에너지와의 연결

우리집 우체통에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름이 CNCITY에너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아빠에게 뭐하는 회사냐고 물어 보았따. 아빠는 과거에 충남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열, 전기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회사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가스라는 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서 겨울에 난방, 여름에 학교 에어컨, 주방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집에 설치한 가스 건조기는 빨래를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고 살균까지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아빠는 술을 자주 드신다. 우리 집은 물을 자주 끓여 먹는데, 어느날 아빠가 술을 드시고 물이 없어 큰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것이었다. 가족 모두 잠든 사이, 엄마는 너무 더워 일어나 보니 끓던 물은 모두 증발해 버려 날아가 버리고 주전자는 새까맣게 타고 있었다. 신속하게 가스랜지를 끄신 엄마는 다음날 아침 아빠를 혼내셨다. 정말이지 큰 불이 날뻔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찔하고 끔찍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 다음날 바로 엄마께서 CNCITY에너지에 전화하여 점검을 요청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CNCITY에너지 직원께서 집을 방문하여 꼼꼼히 이곳, 저곳을 점검하여 주신 후 친절히 점검하는 방법과 과열 화재 사고 예방 기기인 가스 타이머콕이라는 것을 추천해 주셨다. 가스 타이머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차단되는 안전장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젠 안심이 된다.

그 주 토요일 아빠는 가스 누출 검지기를 설치 요청 하셨다. 그런데 검지기를 청정 밑에 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빠께 “왜, 검지기를 천정 밑에 달아요? 가스랜지 옆에 달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하고 물으니 아빠께서는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이 되면 천정으로 체류한단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도시가스는 수입할 때 색깔이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우리가 누출되는 것을 알기위해 냄새를 섞는 것이란다.”하는 것이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뿌듯해 졌다.

그날이 있은 후부터 시청에 근무하시는 아빠, 엄마, 우리가족은 매월 4일 자율 안전검사를 한다.

아빠는 비눗물로 가스배관 연결부위와 밸브 이곳저곳을 점검하시고, 엄마는 보일러와 가스랜지 주변에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시고 깨끗이 청소하신다.

도시가스는 두얼굴을 가진 헐크와 같다. 우리 일상 생활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누출된 가스로 인해 언제 폭발 사고로 변할지도 모른다.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에서 보듯, 한번의 사고가 대형 폭발/화재사고로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을 생활화 하여 사고를 예방 해야겠다.

파란하늘상
(KGS사장상)

원평초
-
최강연

에너지 도시 취재 일기

난 futur science 방송국의 기자이다. 우리 방송국은 이름 그대로 미래 과학에 관한 것을 취재하고 방송하는 일을 한다. 나는 그중에서도 미래 에너지 과에서 일하고 있다.

2050년 9월 15일 오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찾아가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오늘 내가 찾아가는 에너지 자립 마을은 몇 년전만 해도 오염이 심해 공기가 탁하고 수질도 나빠 전염병이 돌던 오염이 심각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환경사랑 캠패인을 시작으로 지금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 성장해 사람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다음으로 눈에 띈 것이 바로 옥상 텃밭 이었다. 보기에도 좋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1석2조이다. 마을주민을 만나 면담을 해보기로 했다 "옥상 텃밭을 언제부터 가꾸게 되었나요?" "옥상 텃밭은 2025년 즈음 가꾸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가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주민도 많았지만 가꾸다 보니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아져서 지금은 좋아 하는 주민이 많아졌어요. 주민과 면담을 끝내고나서 실수로 카메랄르 끄지 않고 마을을 약1시간 30분정도 둘러 보았다.

마을을 둘러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 다른 마을에서는 태양광 전지판이나 태양열 전지판이 옥상이나 주붕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오늘

취재 하러온 마을은 태양광 전지판 또는 태양열 전지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주민께 여쭈어 보니 창문을 힌트로 주셨다. 그래서 주민께 허락을 받고 창문을 관찰하여 보았지만 창문이 다른 마을로가 다른 것이라곤 한집당 있는 창문수가 많고 크다는 것이다. 나는 20분을 더 관찰했지만 더 이상 다른 점을 찾을 찾지 못하여서 주민께 여쭈어 보았다. "왜 이 마을에는 태양광 또는 태양열 전지판이 없나요?" 주민이 껄껄껄 웃으며 대답해주셨다. "허허 태양열 전지판이 없다니요. 신재생 에너지 인데... 저 창문은 일반 유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투명한 태양열 전지판입니다." "그럼 혹시 창문이 크고 많은것도 태양열을 많이 받게 하기위해 그렇게 설치한건간요?" "네. 그렇죠" 주민께서는 나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셨다.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러 다니다 충전식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작은 고속 충전기를 보았다. 이 충전기는 물을 이용해서 충전되는데 물은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는 수소 자동차에서 전기분해를 하고 나온 깨끗한 물을 이용한다. 고속 충전기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켜니 배터리가 없다는 신호가 온뒤 꺼져 버렸다. 다행히 충전기 촬영을 허락해주신 주민분께서 카메라를 고속 충전기로 충전해 주셔서 촬영을 다시 시작 할 수 있었다. "이 충전기는 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발전 하나요?" "충전기에 이런 기다란 잭을 연결 한뒤 끓는 물에 넣어 열을 이용 한 발전을 합니다."

"끓는물에 충전잭을 넣으면 망가지지 않나요?" "물은 천천히 온도가 변하고 끓는점이 100°C로 그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장 나지 않아요." "추가로 질문 해도 될까요?" 나는 몇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했다. 다행히 주민께서 흔쾌히 허락 해주셨다. "전기를 자가 발전 하면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마을에서도 가끔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생겨요. 그런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그러고도 남는 전기는 외부 마을에 기부해요." "그렇다면 이런 발전시설을 설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비용은 어떻게 하였나요?' "캠패인으로 시작한 것이라 일부는 사비로 했지만 부족한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나니 기부를 하는 주민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감사인사를 드리고 마을을 둘러 보며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의 취재를 마쳤다.

파란하늘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문정초
-
김재원

걱정마, 푸른 바다거북아!

금요일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TV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이 나오는 날이다. 정글의 법칙을 보는 이유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주변의 자연을 그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쓰레기 섬에서 선풍기 뚜껑을 심벌즈처럼 사용해 작살없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었다.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나는 장면은 우리는 가슬인지를 틀기만 하면 불이 나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병만족은 불 하나 피우는 데 오랜시간이 걸리고 활처럼 생긴 활비비라는 도구를 이용해 불을 피우는 데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가스불이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가스를 아껴쓰고 안전하게 사용해야겠다고 깨달았다. 몰랐는데 푸른 바다거북이 지구온난화와 사람들 멸종 위기라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암컷이 수컷보다 많이 태어나서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푸른 바다거북은 부화 당시 외부온도가 따뜻하면 암컷, 조금 차가우면 수컷이 태어나기 때문에 해변의 모래가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지면서 새끼거북의 성별이 암컷만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만족장과 멤버들이 어미거북이 밤사이 낳은 알을 안전한 부화 장소로 옮겨주는 일을 하였다. 마치 내가 바다거북의 엄마가 된 것처럼 보는 내내 무사히 알이 부화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났다. 나의 꿈은 원래 의사나 교사인데, 그 장면을 보고 거북 레인저가 되어서 바다거북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꿈이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거북이가 알에서부터 어른 거북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모두 보고 싶다. 정글의 법칙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구환경 보호와 에너지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연을 줄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도보로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냉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지구가 아프지 않고, 나쁜 영향을 마치지 않는 미래 에너지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미래 대체 에너지는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남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에너지이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할 수 있고, 물과, 바람, 땅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수소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나 핵융합 에너지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은 내가 될 것이니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무엇이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새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겠다.

초록바다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교촌초
-
김하영

가스야, 내가 안전하게 사용할게!~

"하영아! 가스밸브 좀 잠궈 줄래?" 뒷 베란다에서 빨래를 하시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어? 가스레인지 위에 아무것도 올려있지 않은데 무엇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다시 한 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영아, 잠궜니?" "아니요, 엄마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옴마가 손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며 벽에 있는 동그란 밸브를 가로로 돌려놓으신다. 그제서야 난, 아하! 깨닫는다. 음식 조리 후에 엄마께서는 항상 밸브를 잠그신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잠겼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신다. 내가 어렸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엄마의 행동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대전 안전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게 되며 궁금한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안전에 대한 나의 지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가스에 관한 상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5살 꼬맹이처럼 엄마께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엄마께서는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다.

엄마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다 기름보일러로 바뀌게 되었고 또 LPG가스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더 오래전에는 동화책에 나오듯 나무를 해서 군불을 떼고 음식을 해서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탄을 자주 갈아 주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기름보일러는 가격이 비싸서 마음껏 쓸 수 없었다. LPG가스는 연탄과 마찬가지로 배달을 시켜야 했고 통에 있는 가스를 다 소비하면 음식을 하다가도 벌벌 떨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때 딱!하고 나타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 연탄처럼 깨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켜야하는 일도 없게 되었고 뜨거운 물을 항상 쓸 수 있어서 좋았을 것이다. 지금도 도시가스는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깨끗하고 저렴한 연료이다.

하지만, 잘못된 도시가스 사용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 되어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비누 거품으로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주며, 가스 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스레인지는 항상 깨끗이 청소해주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출 전, 자기 전에 중간 밸브가 잠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나도 우리 엄마를 도와 우리집의 가스 안전을 지키겠다.

"가스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안전하게 사용 해 줄게!!!"

노은초
-
김채원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우리와 함께하는 도시가스

"채원아, 오늘이 며칠이지?" 엄마께서 물으십니다. 엄마께서는 매월 18일 경이 되면 베란다에서 숫자를 보시고 현관 앞 판에 적으십니다. "엄마, 어디에 무엇을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엄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엄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채원아, 엄마는 도시가스 자가 검침 기록부에 이번 달 도시가스 샤용량을 적는 거란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시가스란 말을 자주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니 엄마께서 "채원이가 이해가 잘 안돼면 한번 더 자세히 찾아보는 건 어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도시가스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도시가스의 정의는 '도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관로에 의하여 공급하는 가스의 총칭' 이었습니다. 또 도시가스는 LPG보다 45%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공해물질이 없어 환경친화적이라고 했습니다. 더더욱이 도시가스는 화재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고 매장량이 풍부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집에서 도시가스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우리 집에서 어떤 곳에 도시가스가 쓰이나요?" 하고 엄마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께서는 저에게 싱긋 웃으시면서 "응, 우리 채원이가 그게 궁금했구나. 우리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난방을 할 때 사용한단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께서는 "호호, 도시가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단다. 또 우리는 도시가스 덕분에 집에서 쉽게 요리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단다." 라고 하셨다. 나는 갑자기 도시가스가 참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사실 사람들이 쉽게 도시가스의 고마움을 잊는 것 같다. 만약 도시가스가 없다면 집에서 쉽게 요리를 할 수도, 겨울에 따뜻하게 잘 수 없을 텐데 말이다. 오늘부터 도시가스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엄마보다 매월 18일 경에 먼저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하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엄마! 이번 달 도시가스 사용량은 ****이에요! 어서 도시가스 자가 검침부에 쓰러 가요!"

관평초
-
박영주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에너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 에너지는 너무나도 위험하지요. 작은 사고라도 일어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한 존재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가까운 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할 안전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지구가 점점 달궈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구 온난화'라 불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균 기온. 2016년에는 사상 최고 기온에 도달해 평균 기온이 무려 섭씨 14.83도에 이르렀습니다. 올 여름을 강타했던 폭염을 다들 기억하시겠지요? 미래에는 최고 기온이 더욱 상승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온난화 현상을 오히려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닥친, 그리고 앞으로 점점 다가올 이 불행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뜨거워진 태양빛을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이 거의 줄어들고, 겨울은 아예 없어져 버릴 미래. 뜨거운 여름에는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해봅시다. 바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입니다. 여름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의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시다.

두 번째 방법은 수력 발전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마철, 즉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태풍 '솔릭'에 의한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내리는 빗물, 즉 물을 이용한 수력 에너지를 이용해봅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수력은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발전기를 돌리는 원리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물의 양이 많을수록, 더욱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도 수력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만 떨어지는 물이 아닌, 파도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지요. 수력과 마찬가지로 파도를 만들어낼 물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심각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함께할 에너지로 적합한 것은 태양광, 수력, 조력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미래를 가진 대체 에너지원이 많으므로, 현재 원자력 발전에 전력 수요를 대부분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천천히라도 반드시 변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석초
-
조윤우

푸른숲상
(CNCITY에너지 대표이사상)

도시가스의 오늘과 내일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도시가스, 오늘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얼마나 소중하고 미래에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다. 내가 이렇게 미래의 도시가스에 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이다.

우리 가족은 그 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우리 엄마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났다는 듯이 깜짝 놀라셨다. 그리고 집으로 향해 빠르게 뛰어갔다. 나는 엄마가 왜 뛰어가셨는지 몰랐다. 그 때 아빠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가스를 켜고 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집에 올라가보니 가스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빠도 상황을 알아챘는지 서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가스를 켜고 갔는데 화재가 나지 않고 가스가 꺼졌을까? 엄마가 설명을 해주셨다. “먼저 도시가스가 발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단다. 가스불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안전벨브가 차단되는 기능 덕분이야. 그래서 다행히 집에 불이 나지 않고 가스가 꺼졌단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도시가스가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범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우주에 도시가스를 연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전에 먼저 북한과 같은 곳에 우리나라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살기 좋은 대한도시가스국가로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집 경험을 통해 안전한 도시가스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북한, 우주까지 범위를 넓혀 고민해 보았다.

매년 이맘때 되면 생각나는 충남도시가스 문예콘테스트 덕분에 나는 평소에 신경쓰지 않았던 도시가스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갑진 경험을 통해 도시가스의 소중함은 물론, 내가 쓰고 있고 혹은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반성할 수 있게 되었다. 30년 후쯤에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를 타고 다른 행성에 여행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저절로 웃음이 나는 상상이다.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

행사 스케치

에너지
문예
콘테스트
2018.9.15
DAEJEON CITIZEN
FOOTBALL CLUB
GATE S2
GROUND
DC FC
CNCITY
에너지

DAEJEON CITIZEN
GATE S2

가스안전점검
가족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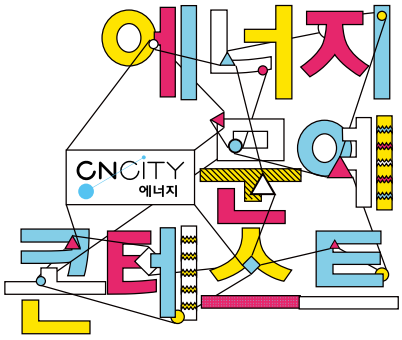
GATE S 1

CNCITY
에너지

CNCITY
에너지

자주자주
DAEJEON CITIZEN FOOTBALL CLUB

CNCITY
에너지



비매품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처 CNCITY에너지

기　획 도시여행자

디자인 도시여행자

©본 책에 실린 글 및 자료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